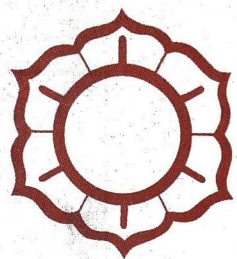


불교총지중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흙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 총지중보

2003년  
7월 1일  
화요일  
제46호

**이 달의 종조법설**  
해탈은 인간의 현실적인 생애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객체적인 생존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형이상학적 실재와의 일치나 율리피인 선의 완성이나 또는 인생을 방관하는 체념 혹은 허무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꿰뚫어 보고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발행인 : 법공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 “전통 배워 미래를 열자”

### 총지중 여름 학생 수련대회



여름학생수련대회에서 어린이들이 총지중의 수행법을 체득하고 있다.

총지중은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램으로 초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북 안동일대에서 도예체험, 하회탈춤 여름학생수련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전통사찰관불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번 수련대회는 '전통을 배워 미래를 열자'라는 주제로 심신수련을 통한 인내심과 자신감을 배양하고 도예체험 및 한지미술체험, 그리고 탈춤 배우기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불교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전통체계를 주로 하였으며 종전의 수련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었던 수련대회와 차별성과 특수성을 부여하였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불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총지중은 불교의 자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장 및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한 불우환경의 어린이들을 위해 참가비 및 일체경비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였다.

한편 총지중은 "수련대회 참가 접수를 7월 16일까지 마감하고 7월 24일 오후 4시에 경북 안동에 위치한 경도대학에서 집결하여 입제식을 시작으로 전통 체험 및 추억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를 진행하며 7월 26일 오전 10시에 회향한다."고 하였다.

#### 총지100문 100답(가제) 설문조사

##### 승승과 교도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총지중 교정부에서는 일선 교화승승님께 도움이 되고, 교도님들의 불교와 밀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목적으로 '총지 100문 100답(가제)'이란 책을 제작, 출판하여 불심을 고취시키고 전국 스승님들과 교도들을 대상으로 총지 32년 6월 16일부터 총지 32년 7월 31일까지 주제별로 각자의 의견과 궁금한 교리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제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교 일반에 관한 사항
1. 기초 교리에 대한 의문점, 2. 불교

의식과 예절에 대하여, 3. 불교의 역사에 대하여(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 4. 불교의 계율에 대하여, 5. 수행방법과 실천에 대하여, 6. 경전공부에 대하여

#### II. 밀교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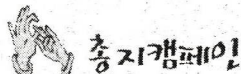
1. 밀교의 기원과 역사에 대하여, 2. 밀교와 만다라에 대하여, 3. 밀교의 수행과 실천에 대하여, 4. 밀교교리에 대한 의문점.

#### III. 정통밀교 총지중에 관한 사항

1. 한국불교에서 총지중에 대하여(총지중의 역사와 정통성), 2. 총지중의 의식과 수행체계에 대하여, 3. 총지중의 불공에 대하여, 4. 원정대중사는 누구인가?

#### IV. 기타사항

한편 교정부장(법등)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전국 스승님과 교도들이 각자 주제별 내용을 읽고 주제에 합당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수집하면서 불교와 밀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바른 신앙심을 고취시키며 이러한 내용들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불자들이 불교와 밀교, 총지중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하며 교화와 포교의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코자 하오니 성심성의를 다해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고, 기일까지 내용을 송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는 공부

세속에서 말하는 인내심(忍耐力), 참는다는 것은 불교에서도 중요한 수행 덕목이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보살이 수행하는 6가지 방법을 말한 육바라밀에도 들어있는 항목이지만 오늘날 사회는 참는 것 보다 필요한 것을 즉시 구해오는 능력을 중시하고 참는다는 것을 어려움으로까지 치부한다. 더욱이 과학의 발달은 많은 부분에서 참을 필요가 없게 만들고 있다.

집집마다 있는 에어컨이나 난방기구는 더위나 추위에 대해서 참을 필요가 없게 하고, 수많은 약과 발달된 의학은 우리들을 병의 고통에서 참을 필요가 없게 해주고 대형마트에 가득한 신품들은 우리들의 식욕을 참을 필요가 없게 해주고 있다.

원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 주위에 온통 널려있다. 더욱이 오늘날 모든 가정이 핵가족화 되고 그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요즘의 젊은 세대는 충종의 욕구에 항상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참는다는 것에 거부감까지 가지고 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을 못 구하거나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단박에 불안해져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고 성까지 내게 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참는 공부인 것 같다. 참고 견뎌내는 공부, 다시 말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모든 장애와 망집(妄執), 들뜬 마음 따위를 견뎌내고 그리고 밖으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공부다.

자신의 환경을, 자신의 현재 위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참는다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지금이 좀 불행하고 힘들다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억지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 지명해진다.

현실의 고통을 참을 수 있어야 미래의 희망도 볼 수 있다는 평범한 순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몸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또 안으로 마음을 지켜 모든 성념 버리고 도를 행하자. 욕을 참는 것, 가장 강하다.

전장에 나아가 싸우는 코끼리가 화살을 맞아도 참고 싸우는 것처럼 나도 세상의 험뜰음을 참고 항상 정성으로 남을 구하리.

잘 다루어 훈련된 코끼리를 임금님이 타는 것처럼 욕을 참아 스스로 다듬어진 사람은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다툼을 피해 다투지 않고 침노를 당해도 성내지 않으며 악을 갚기를 선으로 하는 사람 그를 "바리문"이라 한다.

모두가 인욕의 공덕을 실천 법구경의 내용들이다.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자.

## 모든 중생을 만나거든 보리심을 발하라

### 총지중 하반기 49불공 회향 방생법회

총지중은 오는 7월 15일 부처님께서 참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리수 아래에서 고행 정진하고 무릇 고통과 번뇌로 신음하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 법을 설하셨듯이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한 후 정보화와 인간사의 현상으로 사막해진 현실 속에서 인간 존엄과 생명의 존엄성을 구원하기 위해 각 교구별로 다채롭게 방생법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방생법회는 "불교의 생명존엄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중생을 만나거든 보리심을 발하라"는 보살계를 받은 스님들과 신남신녀(信男信女)들이 자비의 마음으로 죽게 된 생명을 자유롭게 살도록 놓아주고, 삼귀의계를 일러주며,

심미인연법을 실천 후 자신의 업장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는 법회로써 방생은 불교의 오계 가운데 첫째로 참는 '살아 있는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계를 단지 죽이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선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를 구제하는 적극적인 보살행을 구현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부산·경남교구는 7월 16일 경남 함양군 안의면에 위치한 농월정에서, 대구·경북교구는 7월 16일 경남 함천군 합천면 근처인 용문정에서, 그의 사원은 각 사월별로 방생법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총지중 종령 록정 대중사 49재 추선불사

###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극락왕생을 발원

지난 5월 4일 새벽 5시에 주석처인 성남 기로원에서 임직하신 총지중 종령 록정 대중사님의 49재 추선불사(천도제)가 5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총지사서원당에서 총지중의 전 승직자(정사,전수)와 교도보살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록정 대중사는 1972년 총지중 창종 구성원으로서 종조 원정 대승사님과 함께 총지중의 기틀을 마련하고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없이 일상에서 불공하는 총지중의 종지로서 교화를 활성화시켜 불교계의 주요종단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종조 원정 대승사님 열반 후 제 2대, 4대, 6대, 제7대 종령으로서 총지중의 스승님 및 교도들에게 "참회와 평화와 화합으로 진실한 말을 행하고,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참회하고 선행을 강조하시며 철저한 수행으로 종단전체의 화합과 협동이 제일 중요하며 화합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것을 당부하면서 총지중의 정신적

바탕돌이 되었다. 이날 추선불사는 개석사, 대비로자나 불전호법, 추선사, 천수경, 유가삼살, 추복법문, 발원문, 천도법문, 반야심경, 폐식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총지중 장의위원장인 법공(통리원장)종사는 인사말에서 "세연에서 지은 인연의 공덕과 법신 비로자나님의 가지력으로 극락왕생을 발원하였으며, 록



록정 대중사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선사를 낭독하고 있다.

#### 죽비소리

대화의 부족은 언제나 단절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사랑으로 듣고 말해야 한다.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미리 판단을 해서도 반대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열어 감동을 주고 화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울려 존재하기 - 틱낫한)

#### 제13회 불교총지중

### 여름학생수련대회

"전통을 배워 미래를 열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여름학생수련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심신수련을 통한 인내심 및 자신감을 배양하고 도예 체험 및 한지미술체험 그리고 탈춤배우기 등을 직접경험함으로써 장인정신의 기를 받아 도전정신을 성취하도록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 ◆명 칭 : 제13회 여름학생수련대회
- ◆참가대상 : 전국 어린이 및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불우이등
- ◆일 시 : 2003년 7월 24일 ~ 7월 26일
- ◆장 소 : 경북 안동일대
- ◆참 가 비 : 1인당 20,000원
- ◆준 비 물 : 세면도구, 사진1매, 상비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2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 사설

## 불사의식(儀式)의 혁신을 바란다

본종이 창종된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종조 원정대성사님께서 간신고 끝에 종단을 창립하시고 세원이 다하시어 창종 7년 만에 입적하시고 그 이후 종조께서 세우신 수행법은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고 답습하는 차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수행법도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제는 어느 것이 원형인지도 분별하기 힘들다.

사원별, 지역별 정서의 차이로 인해 의식(儀式)이 변형된 부분도 있으며 교화하는 스승의 성향에 의하여 조금씩 변형되었던 것이 이제는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서로가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은 종조께서 법을 세우신 바른 뜻을 알지 못하고 외형적인 면만 답습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선 교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방편을 쓰다보니 본 종단의 기본 법요가 약간씩 변형을 가져오게 되었던 바 이제는 여기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분석, 그리고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돌이켜보면 창종 30여년 동안 종단 내부의 사정도 많이 변했을 뿐 아니라 사회환경과 일반 대중의 의식도 많이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종단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려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기존의 것만 고수하려는 관행 때문에 교화에 침체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변형된 의식(儀式)을 바로 잡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법요의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모든 법요의식의 표준화가 시급하다. 근간에 결성된 불사법요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사원에서 행하여지는 불사의식을 비교분석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한 다음 그 원형을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표준화작업 이전에 새로운 불사의식이 확립되면 이러한 일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겠지만 새로운 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식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주지하시듯 본 종단의 수행법은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수행법이라 할 수 있으나 대중이 동참하여 의식을 봉행하는 데 있어서는 단조로움을 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모든 의식이 "이전에 내가 지은..."이라는 참회문으로 부터 시작되어 실지정진을 하고 "원하건대 이 공덕이..."라는 회향서원으로 끝이 난다. 천편일률적인 이러한 법회의식은 이제 한번쯤 그 개선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참하는 교도의 참여의식과 소속감을 높이고 신심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요의식과는 다른 방식이 절대 필요하다.

우선 고려해야 할 것들은 법회 시간의 단축, 의식을 봉행하는 스승의 역할, 다양한 법구의 사용, 계승의 합승, 불전에서의 삼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의식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대중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각 의식의 목적에 맞는 법요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반 법회와 천도불공, 혹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불공법이 새롭게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승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것만 고수하려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장엄하고 장중하면서도 대중이 환희하며 법회에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여 받아들일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고 생략해야 할 것은 버릴 줄 아는 결단성이 필요하다. 구태의연한 방식을 고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儀式)의 개혁에 따른 손익을 집중적으로 토론하여 종단의 나아갈 바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요의식개혁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는 물론 필수적이며 불사법요위원회를 적극활용하고 법장원의 학술적 뒷받침을 받아 하루 속히 불사법요개혁에 대한 종단의 방침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 밀교 사상사 개론 출판

## 밀교에 대한 이해와 정통성 확립



◇전국 스승님들이 밀교사상개론 출판을 축하하는 축배를 들고 있다.

"밀교는 성스러운 차원의 대상과 속된 차원의 인간이 하나가 되는 성숙합일과 그 성숙합일의 경지를 비일상적인 방법을 통해 체험하는 방법으로 주술과 인계와 명상, 의식을 주축하며 그 초월적인 대상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 초인적인 능력을 획득하고 현실적인 소원을 성취한다."

밀교 사상사 개론이 3년여 동안 동국대학교 서운길 교수와 정태혁 교수 등 밀교의 권위자들과 총지종 법장원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출판하게 되어 전국 스승님들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6월 23일 총지종 총리원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밀교 사상사 개론은 밀교의 정의, 밀교의 기원과 형성, 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교학적 배경, 밀교의 수행과 실천, 한국밀교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동안 밀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서가 없어 많은 불자들이 밀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했으나 이번 밀교 사상사 개론의 출판으로 밀교에 대한 수행체계, 사상 등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기술하고 있어 불교계에서 밀교종단으로서의 정통성을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사상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밀교 사상사 개론은 종조 원정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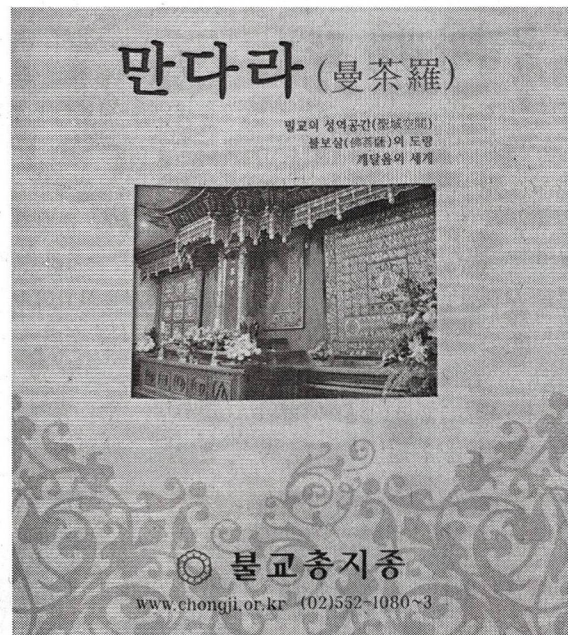
성사님께서 총지종을 창종하신 후 한국불교에서 밀교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고, 문외한 불자들이 많아 밀교를 포교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여 밀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기술할 수 있는 서적을 발간하여 신심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오랜 숙원이 실현되었다.

동국대학교 서운길 교수는 밀교사상사 개론을 주필하면서 "이번에 밀교 사상사 개론을 출판함으로써 한국불교에서 밀교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밀교에 대해 문외한 사부대중에게 밀교의 의미를 부각시켜 최상승의 불교인 밀교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총지종 총리원장(법공)은 발간사에서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을 수렴, 정화하여 교리의 바탕으로 삼고 여기에 완벽한 수행체계를 갖춘 밀교가 최근에 와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없이 다행한 일이며, 밀교에 대해 관심이 많은 대중들은 물론 전문적인 불교 연구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밀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며 또한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한국의 밀교연구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였다.

## 총지종 만다라 소개 리플렛 제작

### 만다라에 대한 공덕과 분류의 소개



◇총지종의 만다라에 대한 공덕과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만다라는 불보살의 세계를 그 바른 이해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만

다라라는 본질, 정수를 얻는다는 뜻으로 삼라만상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밀교에서 깨달음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를 상징한다."

총지종 법장원은 밀교의 성역공간, 불보살의 도량, 깨달음의 세계인 만다라를 소개하고 만다라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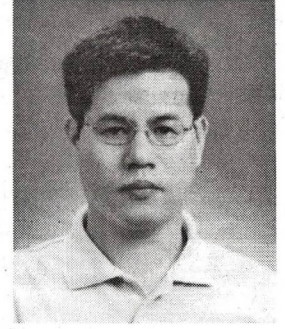
개 소개하여 신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만다라 리플렛은 만다라를 친견함으로써 일체의 바라는 바를 두루 만족시키기 때문에 무상의 환희와 안락과 희열이 일어나며 악취에 드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여래의 과를 이루며 깨달음을 성취하는 만다라의 친견공덕과 내 마음이 곧 만다라의 세상임을 체험하는 진언수행과 모든 불보살의 신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대만다라, 불보살의 손모양과 지니는 물건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삼매야만다라, 불보살의 명호를 나타낸 법만다라, 불보살의 공능과 활동을 나타낸 갈마다라로 사만다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한편 총지종은 지난해 12월 총지사에서 만다라 봉안법회를 시작으로 전국 사원에 진언밀교의 정수인 만다라를 봉안하여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깨달음의 세계, 해탈의 세계로 인도할 예정이다.

### 총지종보

"비록 캄캄한 방에 혼자 있을 지라도 큰 손님을 맞이한 것처럼 하고,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하여 안과 밖을 구별하지 말라." 수행자는 무릇 자기 그림자에도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자기 양심을 자기가 지키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야 하며, 한없이 어려운 일이지만 안과 밖이 다르지 않게 살고, 안으로 먹은 마음이나 밖으로 행하는 것이 한결같이 끊임



김용주 기자

사실을 인식하며 보다 발전된 총지종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종단의 발전은 스승님들과 종단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고 총지종의 모든

월초불공 및 자성일 불공시간에 설법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상설법을 마련하고, 교도들이 총지종에 입교한 후 얻은 공덕이나 신앙생활에서 체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신행체행과 종단과 총지종보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라도 한바탕 마련하여 독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총지종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보다 발전된 총지종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종단의 발전은 스승님들과 종단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고 총지종의 모든

## 총지종보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를 사시로 하여 부처님 법을 모시고 실천하도록 이끌어 모든 독자들이 지혜에 눈뜨고 지혜에 가슴이 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목적으로 모든 불자 및 총지종의 스승님과 교도들의 성원속에 창간되었지만 발행 중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인해 중도에 발행이 중지되었던 적이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꾸준하게 종단을 포교하고, 교도들에게 불교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신심을 고취시키고, 종단의 종지를 이해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차후에도 종단의 정책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종단의 대소사 및 교리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별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기획특집을 마련하고, 스승님들께서 사원에서

교도들이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불교의 실천원리인 자비의 실천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와 너라는 분별심을 버리고 화합하고 협동하여 남을 이해하며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자선이 최고라는 아상을 버리고 항상 하심하는 마음으로 실천행을 행하는 것이 바로 포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형제, 자매, 이웃들이 함께 동참하는 법회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심하고 종단포교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배가 운동의 하나로 각 사원별로 모든 불자 및 교도들이 "이웃에게造福한 이웃들이 함께 동참하는 법회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심하고 종단포교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별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기획특집을 마련하고, 스승님들께서 사원에서

### 알림방

- 제 13회 여름학생수련대회가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경북 안동일대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함.
- 하반기 49일 회향법회를 7월 15일 전국사원에서 오전10시에 봉행함.
- 하반기 49일 회향 방생법회를 7월 16일 전국적으로 개최함.
- 부산경남교구는 함안군 안의면 능월정에서, 대구경북교구는 경남 합천군 합천면 근천리 용문정에서, 그외는 각 사원별로 개최함.
- 제1회 전통 및 사물놀이 강습회를 9월부터 3개월간 총지종 총리원에서 실시함.

#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2003년 5월 19일부터 2003년 6월 19일까지

개천사 이희권 10,000	밀인사 안옥진 10,000	실보사 송희준 10,000	정각사 김정연 20,000	지인사 정복수 10,000
관성사 박현숙 10,000	밀인사 이연수 10,000	실보사 이순옥 5,000	정각사 김정자 10,000	총지사 김효숙 20,000
관성사 이순삼 20,000	밀인사 이혜성 10,000	실지사 김우석 5,000	정각사 남숙자 20,000	총지사 이인성 20,000
관성사 이혜원 5,000	밀인사 정정희 5,000	실지사 손기성 15,000	정각사 박훈취 10,000	총리원 인 선 10,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백월사 강대길 10,000	실지사 송우섭 5,000	정각사 신연자 10,000	해정사 고춘배 5,000
관음사 신막심 5,000	백월사 김강미자 5,000	실지사 이숙례 3,000	정각사 신우필 10,000	해정사 권영숙 5,000
기로원 대 관 10,000	백월사 박삼순 5,000	실지사 이숙자 10,000	정각사 이란이 5,000	해정사 김관식 5,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백월사 차노병 10,000	실지사 이순명 10,000	정각사 이상열 10,000	해정사 수증원 40,000
기로원 법장화 10,000	법천사 김정숙 5,000	실지사 이화수 5,000	정각사 이수임 5,000	해정사 심미자 10,000
기로원 상지화 10,000	벽룡사 박덕서 10,000	실지사 주영채 5,000	정각사 이우희 35,000	해정사 정길오 10,000
덕화사 서영순 10,000	벽룡사 박은숙 10,000	실지사 최영해 5,000	정각사 정희연 20,000	해정사 조숙자 5,000
만보사 배정임 10,000	벽룡사 보심관 5,000	운천사 김부자 10,000	정각사 조인국 5,000	해정사 해보심 10,000
밀인사 무명씨 10,000	벽룡사 오미순 5,000	운천사 이형란 10,000	정각사 조준금 10,000	해정사 강순열 5,000
밀인사 김덕배 10,000	성화사 법 공 50,000	일상사 수 현 30,000	정각사 조현필 5,000	해정사 박홍렬 5,000
밀인사 김덕자 40,000	성화사 신막심 12,000	자석사 배무자 10,000	정각사 최분순 10,000	해정사 이기섭 10,000
밀인사 김춘옥 10,000	성화사 우담바라 100,000	자석사 장경화 20,000	정각사 최옥심 20,000	해정사 이제근 10,000
밀인사 박순이 5,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자석사 정총기 10,000	정각사 황영숙 10,000	해정사 진관사 10,000
밀인사 배태임 5,000	수인사 김 진 10,000	자석사 채춘자 5,000	정심사 박옥란 10,000	해정사 허 관 5,000
밀인사 신대식 10,000	수인사 이순자 5,000	정각사 강길순 10,000	지인사 무명씨 5,000	해정사 무명씨 10,000
밀인사 신동의 10,000	수인사 한애숙 20,000	정각사 김애자 10,000	지인사 김기백 10,000	해정사 무명씨 100,000
밀인사 신동희 10,000	실보사 방원순 10,000	정각사 김점남 10,000	지인사 임순옥 10,000	

###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 기획특집

# 우란분절과 영식천도의 의의

하반기 49일불공 회향일인 7월 15일은 우란분절이다. 우란분절에 대한 유래와 영식천도의 의의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 우란분절이란?

오는 7월 15일은 우란분절(盂蘭盆節)이다. 우란분절은 우란분제(盂蘭盆齋) 혹은 우란분회(盂蘭盆會)라고도 하며 본 종단에서는 양력을 주로 쓰기 때문에 하반기 49일 불공이 끝나는 양력 7월 15일을 우란분절로 제정했다. 우란분절은 《우란분경(盂蘭盆經)》에 근거하여 지옥과 아귀보를 받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베풀어지는 법회이다. 특히 악도에 처한 천도되지 못한 부모와 조상을 위하여 우란분회를 열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 천도를 기원한다. 총지종에서는 부모와 조상을 위하여 49일 동안 불공을 한 다음, 회향일인 우란분절에 돌아가신 부모 뿐만 아니라 7대에 걸친 조상의 영식천도를 기원한다. 이 법회는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민속행사로 정착되었다. 옛날에는 이 행사의 규모가 대단히 방대하여 일반 백성들은 물론 임금까지도 참석하여 조상의 천도를 기원하는 전 국가적인 행사였다고 한다. 또한 농사일이 거의 끝나고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는 음력 7월 보름의 백중일과 겹쳤기 때문에 지금도 우란분절을 백중이라고 하기도 한다.

### 우란분절의 유래

이 우란분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우란분경》과 《목련경(木蓮經)》에 잘 나와 있는데 목련존자(木蓮尊者)와 아귀보를 받고 있는 그 어머니의 구제에 대한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란분경》과 《목련경》의 줄거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십대제자의 한사람으로서 수행력이 뛰어나고 도력이 높아 신통제일이라고 불리웠다. 목련존자의 속세의 이름은 나복(羅卜)이라 하였고 부친은 부사(富婆), 어머니는 청제(靑提)부인이라고 칭하였다. 목련존자의 부친은 많은 재산을 남기고 젊어서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이 자꾸 줄어들어 할 수 없이 목련존자는 상업에 종사하기로 마음먹고 남은 재산을 삼등분하여 하나는 자신의 장사 밑천, 하나는 어머니의 생활비로, 또 나머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하여 스님들을 불러 재를 올리는데 쓰도록 어머니에게 맡겨 놓았다. 그러나 목련이 장사를 갔다와 보니 어머니는 부친의 명복을 빌기보다는 그 돈으로 날마다 개·돼지·소 등을 잡아먹고 놀고 있었다. 그리고는 목련존자가 돈을 벌어들여 재를 올렸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만약 거짓말이라면 7일 안에 큰병을 얻어 죽을 것이며 죽어서는 아버지에게 떨어질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7일만에 죽어서 아버지에게 떨어졌다. 이 사실을 모르는 목련존자는 곧 부처님께 나아가 출가를 하였다. 출가한

후에도 목련존자는 어머니가 속세에서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틀림없이 지옥이나 아귀도 등 악도에 떨어져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계실 것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항상 기도를 드려 주었다. 이와 같이 효성이 지극한 목련존자는 부처님을 따라 도를 깨쳐 남다른 신통력을 증득한 후에도 그 신통력을 발휘하여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가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다가 마침내 부처님의 도움으로 지옥에서 아귀보를 비롯한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는 부처님에게 구제하여 주실 것을 청하였던 것이다. 먼저 《목련경》 가운데의 한 구절을 읽어보자.

### 목련이 세존께 사뢰었다.

“저의 어머니가 개의 몸을 받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개의 몸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 이르셨다  
“목련아! 칠월 보름날 우란분제를 베풀면 너의 어머니가 개의 몸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니라.”

목련이 다시 세존께 여쭙었다.

“무슨 까닭으로 반드시 칠월 보름날을 택해야 하나요?”

“목련아! 칠월 보름은 하안거가 끝나는 날이다. 많은 스님들이 기뻐하면서 한 곳에 모여 너의 어머니를 구제하여 정토(淨土)에 가게 할 것이다.”

이것은 목련의 어머니가 생전의 죄과로 아귀보를 비롯하여 마지막에는 축생의 몸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는 부처님께 그 구제를 요청하는 대목이다. 이리하여 부처님 말씀대로 스님들을 모시고 재를 올린 공덕으로 목련존자는 마침내 어머니를 구제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행사를 본받아 오늘날까지도 우란분절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 우란분이라는 말은 범어의 울람바나(ullambana)라는 말을 음역한 것이다. 이 말을 의역하면 도현(倒懸)이 되는데 이는 거꾸로 매달아 고통을 주고 고문한다는 뜻이다. 즉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지옥이나 아귀도에 태어났면 도현의 고통을 받게 되는데 우란분절은 악도중생의 이러한 고통을 구제하는 날이라는 뜻이다. 즉 우란분절은 《우란분경》이나 《목련경》 등에 실려진 바와 같이 효성이 지극한 목련존자가 악도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칠월 보름을 기해 많은 대중의 공덕력을 빌어 천도불공을 한데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다. 옛날 스님들은 하안거(夏安居)라고 하여 마치 우리가 하반기 사십구일 불공을 하듯이 사월 보름부터 칠월 보름에 걸쳐서 일정한 자리에서 수행을 하였다. 이 하안거가 끝나는 7월 보름을 해하(解夏)라고 했는데 이 날에는 자자(自姿)를 행하였다. 자자란 대중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는 것인데 이 때에는 많은 스님들이 모였으므로 이들의 법력을 빌어 악도에 떨어진 부모 조상을 위하여 천도불공도 하였던 것이다. 하안거 동안 스님들이 일념으로 수행한 공덕은 그 어느 때 보라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목련존



자에게 굳이 하안거가 끝나는 칠월 보름을 정하여 재를 올리도록 한 까닭도 이러한 스님들의 법력과 더불어 여러 사람들의 간절한 발원이 한데 뭉쳐지면 영식이 더욱 쉽게 천도되기 때문이었다.

### 영식천도의 의의

그러면 이제 이 영식천도(靈識轉度)의 의의(意義)에 대해 생각해 보자.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는 않으나 업력을 안고 가는 주체는 인정한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아뢰야식(阿賴耶識)’이라고 하는데 편익상 영식(靈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영식을 천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게 마련이다. 생자필멸(生者必滅), 회자정리(會者定離),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며 또한 윤회의 법칙이기도 하다. 그러면 죽은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영혼과 내세는 정말 있는가? 있다면 어떤 형태를 띠게 될까? 등등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불교는 여기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다. 반드시 영식은 존재하는 것이며 그 영식에 의하여 내세가 결정되고 영식이 지은 업력에 따라 내세의 과보를 받게 된다고 했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오온(五蘊)이 화합된 것으로 본다. 즉 우리의 몸

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결합된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기 때문이다. 나고 죽고 병 들고 늙는 그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이다. 객관계의 물질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지고(成), 얼마간 지속되다가(住), 파괴되어(壞), 없어지는(滅)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색계(色界)는 무상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천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인연들이 모여서 성립되기 때문인데 이를 인연화합 또는 연기(緣起)라고 한다. 우리의 몸은 지(地)·수(水)·화(火)·풍(風)의 사대(四大)를 바탕으로 영식이

인연에 따라 결합되어 유형화된 것이다. 지·수·화·풍의 사대 자체는 본질상 변함 없지만 일단 유형화되면, 즉 육체의 형태를 지니게 되면 생노병사의 변천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천과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식이다.

우리의 식에는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 5식(識)과 현재의 사실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의식(意識), 그리고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며 온갖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제7식인 말라식(末那識)이 있으며, 우리의 업장을 보존하여 다음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아뢰야식(阿賴耶識)이 있다. 이 아뢰야식은 이 생에서의 우리의 모든 행위, 즉 신(身)·구(口)·의(意)의 삼업을 빠짐없이 보존하고 있다가 내세(來世)의 삶을 결정하게 되고 거기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아뢰야식의 작용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타의 식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현재 우리의 육체와 정신계를 활동하도록 하고, 또 살도록 유지시키면서 모든 선악의 행동을 나타내게 하는 생명의 주체라는 점이다. 우리의 죽음이러는 것이 이 아뢰야식이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부파불교의 화살에 의하면 인간이 사망한 후 다음 생을 얻기까지의 영식을 중유(中有), 혹은 중음(中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중음천에 떠도는 불쌍한 영식”이라고 할 때의 중음이 바로 이것이

다. 이 중음천에서는 영식이 다음에 태어날 곳을 찾아 헤메고 다니는데 중유가 평소 선업을 많이 쌓았으면 흰 빛깔이 많으며 죄를 많이 지었으면 검은 빛을 띠게 된다고 한다. 또한 악업을 많이 지은 중유는 좌우로는 보지 못하고 아래쪽만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위쪽만 보고 다니는 중유가 있는데 이는 선업을 많이 행한 영식이 라고 한다. 그리하여 아래쪽만을 보고 다니는 중유는 지옥에 태어날 확률이 높고 위쪽만 보고 다니는 중유는 천상에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또한 이 중음천에서는 업력이 같은 중유끼리는 서로 친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악업의 중유는 악업끼리 선업의 중유는 선업끼리 서로 끌어당긴다고 한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영식왕생뿐만 아니라 모든 유언영식의 왕생성불을 기원하는 것도 선한 영식끼리 서로 끌어당기도록 도와 주는 것이 된다.

아뢰야식에 보존된 업력은 중유를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가령 악업이 많은 중유가 미래의 출생처를 찾을 때 악업의 힘이 중유의 지혜로운 판단을 흐리게 하고 또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지옥과 축생, 아귀와 같은 삼악

도를 극락계와 같은 낙원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악업이 많은 중생은 스스로 달려가서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그곳에서 가하는 고통을 업보로 받게 되며, 반대로 선업을 많이 닦은 영식은 지옥과 극락 등 미래의 세계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태어나도록 그 선업이 안내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악업은 무지를 나타내고 선업은 지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 수행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이다.

### 영식천도는 불자의 도리

학살에 의하면 인간이 사망할 때 선업이나 악업 가운데 어느 한쪽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면 지옥 또는 천상계에 즉시 가서 출생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선업과 악업이 혼합되어 아뢰야식에 보존되어 있으므로 여러 인연이 화합하여 다음 생을 받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이 7일 내지 49일이 된다고 한다. 물론 49일이 훨씬 지나서도 태어날 곳을 찾지 못하고 중음천에 떠도는 영식도 있지만 대체로 이 기간 안에 다음 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십구일공을 올려 영식천도를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평소 자신의 몸에 대한 애착은 물론 재산과 처자권속 그리고 명예 등에 대한 애착으로 뭉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죽은 영식도 이러한 애착은 살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애

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음 생을 받지 못하고 중음천에 떠도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망자(亡者)에 대하여 가지는 애착과 더불어 망자 자신의 영식도 생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해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미륵보살의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 의하면 인간이 사망할 때에는 혼란한 생각이 계속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잠시간 익히고 습관을 들였던 자신에 대한 애착이 더욱 나타난다고 했다(壽命終時, 昏昧想, 長時所習, 成愛現行). 이는 곧 무지와 번뇌의 현상으로서 내생의 길을 가는데 커다란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러한 영식의 애착을 제거하고 영식으로 하여금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하여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천도불공을 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가지력(加持力)과 여러 불보살의 원력(願力)을 통하여 무지한 영식을 깨우쳐 살아 생전 자기에게 가졌던 부질없는 집착과 망상을 떨쳐버리고 무상한 진리를 간직하고 깨달음으로서 바른 길을 따라 왕생성불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는 데에 천도 불공의 의의가 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인간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의 영식을 교화하여 천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이 유상(有相)의 인간만을 생각하고 몸을 벗어 보이지 않는 무상(無相)의 영식은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나 사후의 영식도 오직 형체만 있을 때를 생각해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의 꼭 같다고 한다.

한 집안에 어른이 아파 누워 계시거나 탈산한 자녀가 있으면 집안식구들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듯이 선망부모나 일가친척 선대의 조상 가운데 누군가가 삼악도에 떨어져 한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가족의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할 지라도 고통받는 영식은 항상 이승의 가족이나 친척이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

비록 우리 중생의 삶이 자업자득이라 영식이 고통받는 것도 스스로 지어서 그런 것이나 우리가 지성으로 불공하고 왕생성불을 기원하면 부처님의 위신력과 불보살의 한량없는 대비심에 가지하여 영식이 천도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의 복업과 공덕도 한량없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선망 부모가 저지른 죄업의 대부분이 자식들을 위한 애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살아 생전의 효도는 물론 당연한 것이나 돌아가신 뒤에도 천도불공을 통하여 극락 왕생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것도 살아있는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이 뜻깊은 우란분절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부모님께 더욱 지극한 정성으로 효도할 것을 부처님전에 맹세하고 선망부모와 일체 유언영식의 왕생성불을 지심으로 기원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고 불자로서의 도리라고 할 수 있다.

화령(총지종 법장원)

### 제1회 전통등 강습 및 사물놀이 강습

##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 시 : 9월부터 3개월간  
장 소 : 불교총지종 통리원  
참가비 : 무료

### 〈강습내용〉

#### 1. 전통등 강습

대 상 : 00명 (20세~30세 남여)  
교육일자 : 주중 야간 또는 주말  
교육장소 : 통리원 2층 반야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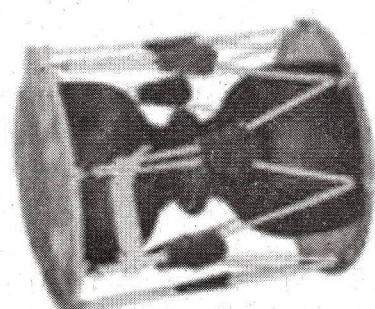
#### 2. 사물놀이 강습

대 상 : 00명 (20세~30세 남여)  
교육일자 : 주중 야간 또는 주말  
교육장소 : 통리원 무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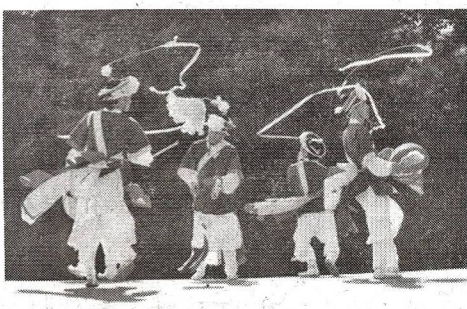
#### 3. 접수 및 문의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 2동 776-2 불교총지종 통리원  
전 화 : (02) 552-1080~3  
전 송 : (02) 552-1082  
이메일 : pantha@hanmail.net - 선착순 마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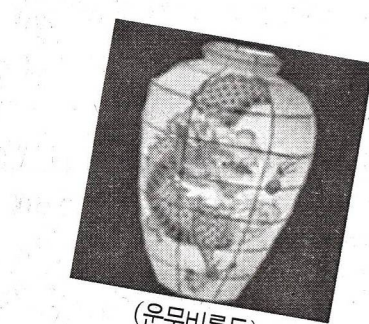
수강신청서는 총지종 홈페이지 <http://www.chongji.or.kr> / 게시판에 있습니다.



(사물놀이 공연 1)



(사물놀이 공연 2)



(운무비롱등)



(축구등)

불교총지종

### 제1회 전통등 강습 및 사물놀이 강습 신청서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

성 명 :  
불 명 :  
소속사원 :  
성 별 :  
직 업 :  
가족관계 :  
현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e-mail :

본인은 (전통등 강습, 사물놀이 강습) 수강을 신청합니다.

\* 위 강습내용 중 본인이 희망하는 하나에 0표 하세요 \*

총기 32년 월 일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귀하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⑤

태장계만다라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의 동방(東方) 보당여래(寶幢如來)

지난 호에서는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의 오불(五佛) 가운데 중앙 대일여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대일여래의 동쪽에 자리잡고 있는 보당여래(寶幢如來)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대일여래의 동쪽, 그러니까 대일여래의 위쪽에 자리잡고 있는 여래가 보당여래이다. 태장계만다라에서 동쪽은 만다라의 위쪽이다. 보당여래를 다른 이름으로는 보성불(寶聖佛)이라 한다. 이 여래는 보리심(菩提心)의 덕(德)을 관장하고 유식학(唯識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제8식을 굴러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전식득지(轉識得智)의 대원경지(大圓鏡智)에 배당되고 있는 여래이다. 보리심이란 아늑다라삼십삼보리심을 줄여서 일컫는 말이다.



『대일경소』에서는 '장군이 군대를 통합함에는 깃발을 중심으로 한다. 깃발 흔드는 방법 하나로써 적을 무찌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석존께서는 지혜(知慧)와 원(願)을 당기(幢旗)로 하여, 보리수 밑에서 악마 군단으로부터 항복받았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당기를 대일여래의 보리심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당여래는 대일여래의 보리심으로서 바로 당기(幢旗)에 배대시키고 있다. 보당여래가 동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이곳으로부터 보리심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인은 여원인(與願印)을 하고 있다. 여원인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다. 옷을 입고 있는 모양은 가사를 오른쪽 어깨와 겨드랑이를 가사(袈裟)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 편단우견(扁袒右肩)의 모습은 석존을 공경하는 제자들의 자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바로 보당여래가 대일여래를 공경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이 보당여래의

보리심 관장하고 부처님의 지혜인 전식득지의 대원경지세계

깨달음 통한 중생을 구제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승보살

『대승본생심지관경』 『방광대장엄경』 『화엄경』 등에서는 보리심을 깨달음을 구해 불도(佛道)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 또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마음,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 깨우침을 얻고 싶다고 원하는 마음, 수행의 최초 출발점(초발심)이라 풀이하고 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외에도 이타적(利他的) 행을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다.

『유마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대지도론』 『대반야경』 『무량수경』 등에서는 '깨달음을 구해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신이 구제되기 보다는 우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원하는 마음으로서 바로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대승보살도를 나타내고 있다. 밀교경전인 『대일경』에서는 '보리심위인(菩提心爲因)'이라 하여 깨달음을 위한 옹맹심과 보리의 자성심(自性心)을 뜻하고 있다.

밀호(密號)는 복귀금강(福聚金剛)이다. 복덕 무더기가 금강같은 여래임을 나타낸다. 삼매야형(三昧耶形)은 광염인(光焰印)이다. 보리심의 불꽃이 발하고 있는 인계(印契)의 삼매야형이다.

존형(尊形)은 백황색(白黃色)을 하고 있고, 오른손은 여원인을 하고 왼손은 가사의 한 쪽 끝을 잡은 채로 왼쪽 가슴 앞에 놓은 모습을 하고 있다.

손을 옆으로 들어올려 손바닥을 위로 한 모양이 여원인(與願印)이다. 일반적으로 여원이라 하면, 오른손을 편 채 늘어뜨리고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여 있는 인계(印契)이다. 앉아 있는 자리는 보련화(寶蓮華)의 연꽃 위이고, 보당여래를 상징하는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이다. 진언은 '나막 사만타부다남 락 라호 스바하'이며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락 라호' 라는 뜻이다.

(자료제공 : 법정원)

한보살의 아름다운 세상

죽음을 준비하자

얼마 전에 장기기증서약을 하였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에 한 정류장에서 버스가 잠시 멈추어 있을 때였다. 길가 정류장에 진열되어 있는 고기들이 거북해보였다. '소나 돼지는 죽어서 그 살점으로 다른 생명을 먹고 살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몸은 저 고깃덩어리들을 먹고 만들어졌으니 본래 내가 아니고 바로 저기 있는 저 고깃덩어리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 내가 저들에게 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내 몸뚱이를 기꺼이 줄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죽어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시신기증이었다. 이 몸이 실향대 위에 올려지고 그것이 공부의 재료가 되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더욱 경건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장기기증 회원증이 우편으로 도착해 있었다. 어머님께 장기기증 사실을 알렸다. 어머니는 여차피 화장할 것이니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다. 그러나 장기기증은 50세 이전에만 할 수 있고, 시신기증은 실험용으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삶다고 하셨다. 이 몸에 대해 나라는 집착이 남아 있는 한 그런 매우 끔찍한 상상이 될 것이다. 나도 그런 생각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 공감이 간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오히려 몸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끊는 명상의 기회로 삼는다.

몸에 대한 집착을 끊는 관법으로 불교에서는 백골관이나 부정관과 같은 명상법이 발달해 있다. 우선, 연기의 이치를 생각할 때 이 몸은 모두 나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몸에 대한 집착을 끊는 백골관과 부정관으로

내 육신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보살행

그리고 죽음에 대한 사색을 계속했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나는 죽는 날까지 일하다가 죽고 싶다. 만일 일할 능력이 없다면 곡기를 끊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해야겠다. 그리고 맑고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 참선과 염불을 열심히 해서 삼매력을 키워야겠다.

만일 죽음이 가까워져 의식이 흐려지면 누군가 내 임종을 지켜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영혼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위로해 주고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 언제 죽음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일하기에 나는 이 부탁을 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야겠다. 그리고 나도 그를 위해 기꺼이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그를 잘 인도하기 위해 명상할 것이라고 서로 약속해야겠다.

도 없다.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아서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고 태어나서는 젖과 음식물로 몸을 키웠으니 이 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나는 이와 같이 연기법을 생각하고, 백골관과 부정관으로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끊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장기기증을 계기로 나는 다시 한번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끊는 공부를 하고 있다. 더불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구체적으로 해 보았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삼과 격리시켜 놓고 아주 먼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죽는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사실이라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한주영/불교연구개발원 연구과장)

생활속의 밀교

「인욕(忍辱)과 하심(下心)으로 진에심(眞心)과 원망심(怨望心)을 없애고, 유화선순(柔和善順)과 자비지혜(慈悲智慧)로써 상구보리(上求菩提)하고 하화중생(下化衆生)과 오세대 제도(五世帶濟度)에 용맹정진(勇猛精進)하겠습니다.」

우리 종단의 불사의 깨 가운데 맨처음 행하는 의례가 바로 이 '실천서원(實踐誓願)'이다. 이 실천서원은 불제자(佛弟子)로서 본분을 다하고 자리타(自利利他)의 보살도 정신(菩薩道精神)을 발휘하여 중생제도와 성불에 전심전력하겠다는 다짐이자 대서원이며, 부처님께 드리는 실천약속이자 맹서이다.

이 실천서원은 불교의 모든 수행정신을 담고 있다. 인욕과 하심은 수행자가 지나야 할 실천수행의 기본덕목이다. 인욕하고 하심하는 마음이 없으면 수행에 큰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삼독심(三毒心)에 깊이 빠져 진정한 수행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인욕(忍辱)은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을 굳건히 참고 견디어 내는 것이다. 하심(下心)은 인욕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곧 인욕이 하심이고, 하심하는 그 마음이 곧 인욕이다. 내 마음을 조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실천서원'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것이 참불공이다

무릇 수행자는 인욕과 하심으로 모욕이나 박해를 인내하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에서 마음을 안정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게했을 때 수행이라 할 수 있다. 수행을 위해서는 첫째도 인욕과 하심이요 두번째도 인욕과 하심이다. 이를 수행의 기본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인욕과 하심만으로는 진정한 수행이요 참 실천이라 할 수 없다. 참수행과 실천에는 대승적 보살행이 요구된다. 그것은 곧 대자비와 지혜를 일으켜 보리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며, 대승보살로서 자리타의 정신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화도중생(化度衆生)이 오세대 제도(五世帶濟度)이며, 자리타의 수행과 중생제도를 위해 오로지 용맹정진(勇猛精進)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개인의 수행에서 점차 대중을 위한 수행으로 확대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며 불교의 회향정신(廻向精神)이다.

이러한 정신을 지니고 끊임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실천서원은 역설하고 있다. 불공시에 일으키고 외우는 서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천서원'을 진정으로 실천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참수행, 참불공이라 말할 수 있다.

(법경/법정원 연구원)

장기기증!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장기기증 신청 방법

- 1) 02)734-8050으로 전화상담 ⇨ 신청서류접수 ⇨ 등록
2) www.lisa.or.kr 접속 ⇨ 인터넷등록
3) 종로구 견지동 74-8사무실직접방문 ⇨ 상담 및 등록

뇌사시 장기기증

뇌사

상태에 처한 사람의 장기(심장, 신장, 간장, 폐장, 각막 등)를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사상태는 자발호흡이 불가능하고 소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흔히 혼동하는 식물인간과는 다릅니다. 뇌사자 본인이 생전 장기기증을 서야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동의할 시에 병원과의 협조하에 이루어집니다.

사후 각막기증

각막

기증이란 주로 시신경 기능은 살아있으나 각막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자에게 시술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한 지 6시간이 안된 시신의 각막을 적출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이식하면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각막기증은 선행, 근시, 난시와도 상관 없으며 80세까지도 기증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후 6시간내에 빠른 연락을 해야만 각막이식이 이루어 지루 수 있습니다.

사후 시신기증

현재

각 의과대학에서는 해부용 시신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 시신기증이란 의학발전을 위해 죽은 후 자신의 몸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것입니다. 의학발전은 병마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 줍니다. 즉, 사후 시신기증은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커다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생전 골수기증

골수

기증은 백혈병이나 골수이식이 필요한 각종 암환자에게 새생명을 주는 고귀한 나눔의 골수기증은 만 35세 이하인 분으로 건강한 분이어야 하며, 헌혈을 한 번 정도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골수기증은 골반뼈에서 골수액을 채취하며, 약 2일 정도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생전 신장기증

우리

주변에는 만성신부전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신장 2개 중 하나를 환자에게 기증하는 것입니다. 신장기증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체조직이 일치해야 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생전에 하는 기증이기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동의도 필수적입니다.

환자지원 및 후원접수

생명

나눔실천회는 접수된 후원금을 백혈병이나 신부전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소판 헌혈과 헌혈증도 함께 지원합니다. 아울러 생명나눔실천회가 주체가 되는 각종 캠페인과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과 자원봉사는 삶과 생명 나누기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총지논단

본 글은 종조 원정 성사께서 서 적간행을 위해 친히 쓰셨던 원고 의 일부입니다. 원정 성사께서 창 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구절절 일체중생제 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 니다.

또한, 한국밀교의 중흥을 창종 정신으로 삼았던 종조 원정 대성 사께서는 정통밀교종단의 교상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으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손수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 시의 유교(遺稿)에서 엿보게 됩니 다. '심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아우 르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계행〉

자식 잘 되기를 서원하였던지 소원성취를 바랬던지간에 정기 심공(定期 心工) 중에는 특히 계행(戒行)을 지키는 데 공덕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계행을 지키지 않으면 심공 가운데 마군이란 일어난 게 되고 서원하는 사항과 자식에 대한 희망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죄과〉

거짓 망어하는 이는 대개가 빈천하여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더욱 불신하고 비방을 하게 될 것이요,

꾸민 기어하는 이는 곡해하여 부부간 상대의 한 편이 말을 잘 못하고 잘못을 이해케 하는 변재(辯才)가 없을 것이요,

이간 양설하는 이는 질투심이 많아서 더욱 자기 가족이 불목불화하여 잘 싸우고 다들 것이요,

모진 악담하는 이는 자기가 중한 병을 지니게 되고 육친 가운데 비참한 일이 많을 것이니라.

〈교(敎)를 청정케 해야 한다〉

교도(敎徒) 안에 들어와서 무지한 행동과 추잡한 장난으로 보살회를 더럽히거나 심인당을 해롭게 하는 그들의 집에는 손재(損財)가 잘 나고 병이 줄어들지 않으며 관재(官災)와 구설(口舌)이 일어나며 가족간에 서로 싸우고 불미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니라.

〈심인진리〉

심인은 나에게 있는 부처의 이름이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니 이전에 잘못한 것을 알아서 마음으로 고치는 진리이다.

〈참회(懺悔)와 하심(下心)〉

1. 남의 허물을 낮과 같이 밝게 보는 사람은 내 허물은 밤과 같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내 허물을 낮과 같이 밝게 보는 사람은 남의 허물은 밤과 같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느니라.

2. 남의 허물을 흉보지 말고 내 허물을 깨달을 것이니라. 나에게도 몸과 입과 뜻

실천공부

으로 지어서 수미산 같은 큰 허물이 있으니 먼저 회사하고 그와같은 허물을 내가 짓지 아니 하기를 참회하고 서원하는 데 나의 허물만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도 곧 없어지느니라.

3. 아버지는 허물의 근본이 되고 아들과 딸과 며느리는 허물의 결과가 되는 것이니 나는 저와 같은 허물이 없다가

- 삼업 심악 참회 사후지옥
살생중죄 금일참회 도산지옥
몸 투도중죄 금일참회 화랑지옥
사음중죄 금일참회 한방지옥
망어중죄 금일참회 금수지옥
기어중죄 금일참회 발설지옥
양설중죄 금일참회 독사지옥



〈심인 보살님께 참회하고 서원하는 말씀〉

지혜로 용맹과 회사를 세워서 어리석어 성내고 탐하는 마음을 없애고 부모에게 복업 짓고 가정에는 화목하여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정공회사하겠습니다.

〈용맹정진〉

자성일에 정한 심공을 하는 데 옛세 동안 행복하게 살고 자성일에 정한 심공을 하지 않는 데 옛세 동안 고통으로 살게 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법계의 모든 하늘과 인간사회에 공일(空日)을 두게 된 이치를 알지 못하고 남다른 처생과 알뜰하게 버는 데도 불구하고 곤란재앙 우환질병 속에 사는 것을 험안이라야 능히 알리라.

〈행복한 데 이르는 심공(心工) 고개〉

서원하는 묘덕이 일어나자면 이와 같

남의 허물 보지 말고 내 허물을 먼저 깨달아라

하지말라. 자식들의 허물이 나로 인연한 것이라.

인(因)이 없으면 과(果)가 없는 것이니 내가 부모에게 지은 허물을 뉘우치는데 효순하지 않는 아들과 딸의 허물이 없어지고 내가 시어머니에게 지은 허물을 깨달아서 참회하는 데 며느리의 큰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니라.

- 악구중죄 금일참회 박도지옥
람심지옥 금일참회 철산지옥
진심지옥 금일참회 구애지옥
치심지옥 금일참회 흑안지옥

법계진각님은 천상 천하에 하나이니 우주에 충만하여 없는 곳이 없으니 가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먼저 보라.

은 과제가 있느니라.
철할 심공에는 사일 고개가 있고 삼철 심공에는 열 하루 고개가 있고 칠철 심공에는 이십오일 고개가 있고 백일 심공에는 육순 고개가 있고 평생 심공에는 사년 고개가 있느니라.
이것을 알아서 속지 말고 용맹으로써 고개를 깨달아 넘어가는 데 평탄한 길을 걸어 행복한 데에 이르게 되느니라.

〈염승〉

본심 진언을 무슨 이유로 염승하는가를 많이 생각하여 보고 서로 질문할 것이다.

아미타불 본심진언은 '단아타 음 아리다라 사바하'이다.(남편에게 적당한 밀교 법이다)

아미타불은 금음동철 산호 진주 마니 자거 마노 금강 철보 극락세계를 건립하시고 이 진언을 염승하는 각자에게 다가 현세에 곧 철보극락으로 잘 살 수 있게 마련된 까닭으로 심공하는 남자로서 이 법을 무시하면 결국 철보가 가난하게 되리라.

관세음보살 본심진언은 '옴마니반메훤'이다.(부녀에게 적당한 밀교법이다)

관세음보살은 미타삼존의 좌보살(左菩薩)이라 복덕지혜가 구족하시어서 이 진언을 염승하는 보살에게 제일 먼저 남편을 행복케 하고 자신들이 창성하여지며 일체 제행의 근본이 된다고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을 보고 칭찬하시었다.

또 이대로 중생이 이미 다 그 덕을 알고 찬(讚)하고 원(願)하여 오던 바요 우리 교의 성수(聖水) 받은 신교도를 보아서도 설절하는 바이니 남편과 자손이 잘 되어서 항구하게 행복으로 잘 살 수 있게 마련된 까닭으로 심공하는 부녀로서 이 법을 무시하면 결국 남편과 자손에게 해가 먼저 미치게 되느니라.

본심진언을 한 번 외우는 묘덕은 팔십억겁 불보살의 명호를 부른 공덕과 같고 항상 외우거나 지니는 이는 질병이 물러가며 관재(官災)가 소멸하여 자손이 창성하며 철보세계와 철보주택에서 살게 되고 재물이 뜻과 같이 되며 높은 직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며 난리와 전중(戰中)이라도 일체 재난을 면하게 되느니라.

(자료제공 : 종학연구실)

조선화원장의 총지 등의 보급

감기 후유증으로 아이들이 잘결리는 「중이염」



중이염은 귀를 부위에 따라 나누면 흔히 귀지를 제거하는 부위인 외이, 고막안쪽을 중이, 실제적인 청각에 관여하는 내이로 되어 있습니다. 중이염이란 이가운데 부위인 중이에 세균이 침입하여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단골질환

면역력이 떨어진 성인에게도 종종 생기지만 중이염은 역시 모든 소아의 1/3이 3세 이전에 3번이상 나타날 정도로 아이들의 단골질환입니다.

대개 감기 후유증으로 잘결립니다. 특히 3세미만의 아이들이라면 어른처럼 자기 몸의 증상을 말로 호소하기 어려운데다 해부학적으로 이관이 곧고 짧기 때문에 감기로 인해 생긴 분비물(콧물,가래)등이 배출되지 못하고

중이로 넘어가 감기후에 80%정도 아이들이 중이염을 경험합니다.

감기에 걸려 맑은 콧물이 1~2주안에 그치면 합병증까지 가지 않지만 기침을 하고 가래가 심하면서 중이염이 오게 되면 귀안에 물이 차게 되어 삼출성 중이염이

만 빨리 효과적으로 치료 된다면, 중이염은 심각한 질환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력도 대개 정상으로 회복될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몸의 면역력도 좋아지고 이관의 모양과 기능도 좋아지게 되어서 중이염에 덜걸리게 됩니다.

중이염은 중이에 생기는 염증
비타민과 무기질이 예방 효과

되는데 이물이 빠지는데 보통 한달정도가 걸립니다. 급성중이염으로 심한 귀의 통증이 있는 것을 방지하면 머리의 주요기관들로 염증이 퍼질수 있습니다. 하지

아이를 사랑한다면...

우선 감기에 잘결리지 않도록 평상시에 환기를 잘시

키고, 섭생을 잘살피는게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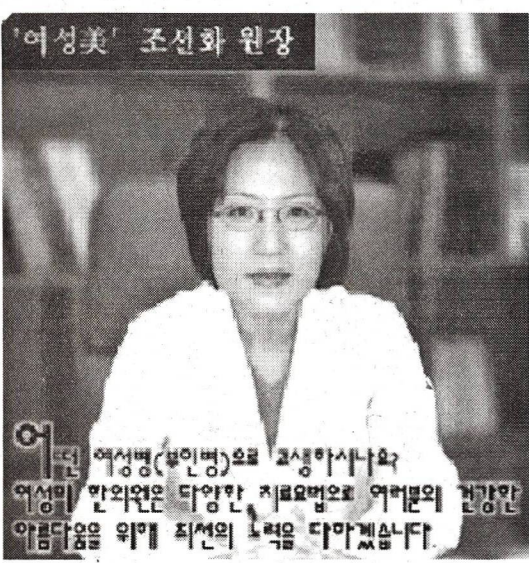
또 신선한 녹황색 야채와 제철 과일을 통해 비타민과 무기질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적당량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우유병은 돌까지만 사용하게 좋습니다. 돌이 지나서도 우유병을 열심히 빨면 이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되어 중이염에 더 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혹 중이염은 귀에 문제가 있는 병이니 귀속을 소독해 주면 빨리 낫지 않겠느냐며 문의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중이염은 고막 안쪽인 중이에 염증이 생긴 것이어서 고막 바깥쪽을 소독한다고 해서 더 빨리 낫는건 아니랍니다.

수영장에 다니던 아이라면 중이염이 다 나을동안은 수영장에 보내지 않는게 바람직합니다.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간접흡연으로 아이의 기관지 섬모운동이 둔화되어 중이염에 잘결립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숨쉬는 공간에서는 되도록 금연하세요.

여성 美 한의원 원장 ☎(02)545-0072



여성 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제(임뎃), 임신중독증 등...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자경단(子經丹)

- 중양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불임 자궁어혈케어

생혈액분석기



자동발광진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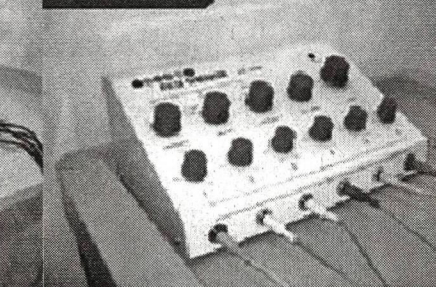
초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시리기



작은목기





풍경소리

행복한 기다림

잘 나가는 친구가 배운  
과분한 술자리에서 돌아오는 길엔  
왠지 소화불량 증세로 아랫배가 땡땡합니다.

처지가 어렵게 된 친구를 만나  
술값을 서로 내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엔 신명이 슬쩍 실려 있습니다.

막차가 끊어졌을 게 싫어 약간은 불안해하는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 굉음을 울리며  
전동차가 씩씩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흐릿한 신명이 실려 있는데요  
- 이 우 상(소설가)

젓가락

젓가락은 두 개가 하나일 때 제 구실을 할 수 있  
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없다면  
다른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누구든 항상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존재의 고마움  
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비었을 때  
비로소 그의 존재를 크게 깨닫게 됩니다.

한 쌍의 젓가락.  
어쩌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는

커다란 힘입니다.

- 김 영 희 (시인)

행복과 불행

장밋빛 꿈을 안고 한 청년이  
<행복>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신혼부부의 방에  
어느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뉘신데 남의 방에 들어왔소."  
"저는 <불행>이라는 여자입니다.  
<행복>이라는 여자와는 한 몸이어서  
일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잔소리 말고 빨리 나가시오."  
그러자 그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 방을 나가려면 <행복>이라는  
여지도 함께 나가야만 합니다."

- 김 원 각 (시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욕망은 실로 그 빛깔이 곱고 감미로우나  
이것은 내게는 재앙이고 중기이고  
화이며 질병이며 화살이고 공포일지니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그물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흩날릴 때 짓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 슈타니파타중에서

(자료제공: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부설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나도 한마디

승가(僧伽)의 길

위로는 어른을 모시고 아래로는 후학(後學)들을  
잘 이끄는 중생생활 속에서 참 인간됨의 모습으로  
여법(如法)하게 공부하여 마음자리를 다스릴 줄 알  
아야 한다.

또한 장부(丈夫)에 이를 수 있도록 선(禪)의 길,  
마음의 '소'를 찾고 늘 의정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스스로 자족(自足)의 나날을 보내고 심향(心香)이  
되어 주위에 아름다운 향기를 베푸는 것이 참 수행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부처님의 한평생이 법(法)이었고 다른 것은 다  
방편이어서 그 제자로서 우리들은 무소유의 청정한  
마음만을 간직 할 뿐 그 외의 것을 추구하려 하면  
참된 불가수행의 길이 될 수 없다.

올바르고, 참된 수행자는 마음의 탐(貪), 진(瞋),  
치(痴)의 마군(魔軍)을 이기고 중생과 더불어 정법  
(正法)을 펼쳐서 사방의 불보살님들과 더불어 한 마  
음이요, 오직 불심(佛心)의 노래만이 존재한다.

무루(無漏)의 복(福)을 닦고 꿈같은 세상, 맑고  
청아하게 세상에 대한 그리움 다 그치고 깨끗한 삶  
을 살아가는 것이 승가(僧伽)의 길이다.

부처님 법(法)을 따르는 제자답게 해탈의 마음,  
모든 번뇌, 망상 바람결에 날려보내고 불퇴전(不退  
轉)으로 용맹정진하여 청정한 수행자가 되고자 한

다.  
이 수행은 완성된 인격, 곧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육바라밀의 보시행을 실천하여 그 어디에  
도 걸림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고행을 넘어  
서 오직 수행정진의 일념으로 앞을 보지 않는 지혜  
의 수승한 꽃으로 피어나야 우리의 갈 길에 아니겠  
는가?

(총님 부여군 如如精舍)

나도 한마디는 총지종보 독자의 공간입니다.  
책을 읽고 느꼈던 소감이나 총지종보, 총지  
종 종단에 바라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총지종보사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총지종보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이메일 : kyjja@hanmail.net



# 연꽃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연꽃 한 송이 피어나 하나의 극락이 열리고  
그 연꽃 바라보는 한 순간 부처의 마음도 보이도다  
진토가 극락되고  
극락은 우리 마음속에 있나니  
일체중생이 연꽃되는 날 시방세계가 극락되리



- ◆축제기간 : 2003년 6월 29 ~ 2003년 9월 21일
- ◆축제장소 : 천안 상록리조트 놀이공원내 태극광장(야외전시)
- ◆관람시간 : 10:00 ~ 18:00
- ◆주 최 : 국민연금관리공단 상록리조트
- ◆후 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원불교, 현대불교사.



# 국무총리실 훼손행위 공개사과 촉구

## 불교계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난



국무총리실이 지난달 17일 발간한 서울의곽순환도로 북한산관동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 "중들이 하면 수행환경 조성을 위한 종교시설이고, 불교계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라는 표현으로 불교를 모독하고 비하하였으며 자연과 전통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불교계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등 종교모독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

불교계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개사과를 촉구하였다. 한편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에서는 이번 국무총리실의 불교 모독 행위가 과연 현 정부의 대불교 정책인지 의문시 되며 불교계에 약속한 대선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활동을 약속한 노선재검토의 결과마저도 왜곡하여 결국 불교를 폄하하고 무시한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현

참여정부의 무지와 담당 국가공무원들의 왜곡된 종교편향적인 시각에서 기인하고 것이라고 주장하며 첫째 국무총리실은 금번 훼손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있는 해명과 더불어 공식사과하고, 둘째 노선재검토위원회 보고서 내에서 자행한 훼손행위의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고, 셋째 현정부는 '북한산 관동도로 백지화 및 대안 노선 검토' 등 불교계 공약사항을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대한 규탄과 항의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관음종 총본산 묘각사 낙성법회 법회신앙의 중심지 도량으로

관음종 총본산 낙산 묘각사는 6

## 총지중 홈페이지 개편작업 추진

### 온라인 공간상의 포교활성화

총지중은 정보화시대로 온라인상의 불교포교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포교활성화를 모색하고자 오는 7월부터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종단 홈페이지는 관리상의 어려움과 전문적인 관리자가 선정되지 않고 자료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으나 종단의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하기 위

월 7일 7년여 봉사 끝에 낙성법회를 가졌다. 1997년 2월 발생한 화재로 대웅전과 범종각 등이 소실된 후 불자들의 원력으로 대장불사가 이루어졌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총지중총무부장, 한일불교교류협의회 고문 다카하시 류텐스님 등 사부대중 3,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격려와 후원, 동참봉사로 낙성식을 병행하게 되어 환희의 날을 맞게 되고 오늘을 전기로 불교발전예에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묘각사는 1930년 서울 종로구 승인동에 관음종 전 종정 태허 홍선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도심포교의 중심지 역할을 자처하며 두 번의 중창불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 전문 웨디자이너에게 의뢰하였다.

한편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최홍순씨는 "홈페이지의 양식과 규모가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이번 총지중의 홈페이지를 제작함에 있어 관리상의 용이성과 이용자의 의견을 개재할 수 있는 게시판과 공지사항을 메인화면으로 설치하고, 기타 종단과 관련된 사항은 자료실로 압축하여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접근의 용이성과 보안성을 추가하여 작업을 착수할 것이다"고 하였다.

## 불교계 청소년포교 활성화 기틀 마련

### 파라미터 역삼동 청소년 수련원 위탁운영선정

강남구청은 6월 9일 사회복지 전문위원 및 지역주민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3년 12월 완공할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을 사단법인 파라미터 청소년회회가 위탁 운영하도록 최종결정하였다.

역삼동 청소년 수련원은 역삼동 776-28에 위치하고 있으며 3백여평 건물로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 및 수련장, 운동시설, 놀이공간, 청소년 상담센터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2003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사단법인 파라미터 청소년회회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서양의 물질문명과 향락 퇴폐 문화에 물들어 가고 있다는 판단아래 청소년들에게 민족전통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심과 시민의식을 기르고 정통정신과 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6년 5월 대한불교 조계종이 설립한 단체로 현재 각 시도에 지부와 지회가 설립되어 있고 만 5천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신행체험 ③

# 신심은 공덕의 어머니



신인록(밀승관)보살 (경각사, 부산·경남기회화)

간에 소멸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정각사로 올라가기 위해 한 계단 한 계단씩 계단을 밟고 올라간다. 가파른 계단을 숨가쁘게 내리는 숨소리 가운데 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숨 사리로 흘러나오는 듯하며 한 계단, 한 계단에 "무로 중생의 고통을 느끼며, 항상 남을 위해 봉사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 해탈에 이르고, 수정처럼 맑고 청아한 마음으로 순수한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 용맹정진하라."는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러한 목소리를 들으며 올라가는 계단이 마치 남들을 질투하고, 나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탐심과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신심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 스스로 고통과 번뇌의 수렁속에서 살아가는 지심이 가득한 중생세계에서 평화롭고 서로 화합하며 남을 먼저 생각하는 나와 너라는 분별심을 버리는 이곳이 부처의 전당인 천상으로 향하는 길인 듯한 느낌이 든다.

바로 이곳에서 어느 누구도 느낄 수 없는 행복의 순간들!

여만 겁 동안 쌓여온 업장들이 소멸하며 다기선 환희의 불빛! 서원당 안에서 부처님의 잔잔하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들려오는 "신심은 도의 근본 공덕의 어머니이다. 일체의 선한 법을 길러 내오며 의식의 그물을 끊고 애정을 벗어나 열반의 위없는 도를 열어 보이네. 신심은 때가 없어 마음이 깨끗하고 교만을 멸제하고 공경의 근본 법공의 첫째가는 재물이 되며 청정한 손이 되어 모든 행 반에. 신심은 보시 잘해 인색치 않고 신심은 환희하며 불법에 들고 신심은 지혜 공덕 증장케 하며 신심은 여래 지위 이르게 하네. 신심은 모든 근을 밝게 하고 어렵게 믿는 힘 견고하여 부술 이 없고 믿음은 번뇌 근본 아주 멸하며 신심은 부처 공덕 향하게 하네. 믿는 마음 경계에 집착치 않고 고통을 멀리 떠나 어려움 없고 신심은 마의 길을 능히 뛰어넘어 위없는 해탈도를 보여 주도다. 믿음은 썩지 않는 공덕의 종자 믿음은 보리수를 생장케 하며 믿음은 승한 지혜 증장케 하고 믿음은 부처님을 나타내도다"하는 의심하지 말고 굳건한 신심을 가지고 용맹정진하는 가운데 모든 공덕이 주어지고 지혜를 열어 해탈할 수 있다는 말씀이 귓가에 아련히 들리우며 가슴속에 사무치게 밀려온다.

명륜동에 우뚝 솟아 있는 정각사 주위에 너울너울 출렁이는 빛방울들 사이로 하얀 구름들이 휘황찬란하게 휘감으며 아래로 내려오더니 정각사만 우뚝 솟아나 마치 용이 하얀 구름사이로 천상하는 모습과 같이 보이며 모든 중생의 번뇌와 고락을 한 순

왜냐하면 지금까지 불공을 하면서 많은 공덕도 있었지만 며칠 전 우연히 부처님과 음반니베놈의 진언행자로서 지켜야 하는 계행을 어기고, 옛날에는 매일 새벽과 저녁에 서원당에 나가 용맹정진 하였지만 요즘은 욕심이 예전과 같지 않아 염승도 태만하고 신앙생활에 소홀하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의 이러한 모습과 마음가짐을 신통력으로 알아보고 나에게 이런 법을 설하시는지나 하고 생각했을 때 나의 잘못에 대한 참회를 하였다.

이러한 참회의 눈물을 흘린 후 서원당을 나와 어두운 밤하늘 사이로 보여진 부산지역 시내의 가로등 불빛들과 나뭇잎 사이에 앉아있는 물방울들이 영롱한 초롱 빛을 발하여 포도송이처럼 엉글어져 나를 위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반야심경에서 설한 것처럼 모든 것은 공인내 마음속에 있는 허상에 의해 남을 질투하고,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면서 남의 흥을 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항상 남을 위해 회상하는 자세로 자신이 먼저 숭순수범하는 깨달음을 이룩 정각사에서 증득하게 되어 나의 삶에 윤택함과 더불어 평화와 행복을 주어 부처님의 공덕에 보답하는 마음자세로 생활하게 되었다.

이제는 부처님의 전당이요, 극락정토이며 해탈의 경지에서 내려가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 믿음은 부처님의 지혜를 증장케 한다

### 빠속에서 우러나오는 뉘우침의 눈물

아침 일찍부터 반늦게까지 일터에서 노동하고, 늙은 사람, 젊은 사람, 각각각색의 사람들이 수

레바퀴 돌 듯 살아가는 곳, 다른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나도 탐심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진심을 내기 때문에 나도 진심을 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치심을 내기 때문에 나도 치심을 내야 하는 곳 그러나 진흙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자신은 가장 깨끗한 모습을 고이고이 간직하는 연꽃을 생각하며 "그래 세상이 나를 속일 지라도, 세상이 나를 괴롭힐 지라도,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계단을 내려온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정각사에 입교할 당시에는 오로지 잘 살고 싶다는 어리석은 욕심만 있었음을 알고 돌이켜 보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업과 허물에서 왔음을 깨닫게 되고 모든 일들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던 자신의 허물을 알게 된 것은 정진수행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미흡하나마 나름대로 정진수행하면서 빠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회와 뉘우침의 눈물도 흘리게 되었고 작년에 병상에 누웠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처님의 은혜와 항상 저를 걱정해 주시던 스승님들 교도님들의 은혜에 보답할 길은 더욱 용맹정진하여 겸손한 불자, 참된 불자의 길을 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항상 비로자나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저의 신앙생활과 믿음은 음으로 양으로 격려해 주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표한다.

## 이제 당신의 사랑을 예금하세요

사랑은행(Lovebank.or.kr)은 On-line과 Off-line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인간사랑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의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직접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세상과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Off-line**

개인, 가족, 단체, 기업

예금선택  
지원봉사, 물품  
현금, 스타사랑  
펀드가입  
사랑, 가족, 실버

예금주(회원) 가입  
사랑예금 등록

예금의사 확인  
홈페이지 예금  
등록 및 공지

**수혜자**

수혜자 선정 및 프로그램 협의  
예금지출 영수처리

**On-line**

Lovebank.or.kr 사이트 운영

예금주 구분 및 예금적립  
수혜대상자 선발  
지원봉사 대상시절 선발  
예금 및 프로그램 진행  
지출내역 공개 및 발송

**청소년미래연구소**  
Institute for Youth Future  
www.lovebank.or.kr



사원탐방은 교도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교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교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02)552-1080 팩스: (02)552-1082

## 불공은 불교의 수행이요, 그 목적은 성불에 있다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의 쌀쌀한 기운이 몸을 감싸 안으며 다가간다. 주위에는 열은 안개가 온 동네를 뿔뿔히 퍼뜨리고 있다. 이른 새벽이지만 오고가는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향해 빠른 발걸음을 재촉한다.

서울의 한 북방이면서 한국 문화의 중심지이며,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인 역삼동에 위치하면서 부처님의 진리를 체득하고 유가삼밀관행법으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룩한 밀교의 정통도량인 총지사! 총지사는 총지종의 본산으로 총지종의 모든 법과 의식과 의례와 법신 비로자나불이 법을 설하는 밀교의 근본도량이다.

또한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를 기치로 유명 불교사찰이 대부분 산속에서 상구보리를 주장하는 스님들과 달리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중생들의 아픔을 아루만지고, 생활속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룩할 수 있는 밀교문으로 자신의 집착과 망상과 아집으로 인해 번뇌와 고뇌에 빠진 중생들에게 삶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심신을 수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밀교의 정통도량인 총지사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호기심과 더불어 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서원과 함께 서원당으로 들어서니 불단에는 음미반배합의 본존이 가운데에 자리 잡고 계시면서 태상계와 금강계 만다라의 수 천의 불보살들을 통솔하며 자비의 금빛 환희한 광명을 발하시며 수행자에게 법을 설하시고 계시다.

###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주인공아, 그대가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은 눈 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한평생이 얼마나 되기에 도를 닦지는 않고 게으름만 부릴 것인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나니, 금생에 도를 닦지 않고 헛되이 죽어버리면 만겁을 지나도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라. 모름지기 법에 의지하여 날마다 새롭게 부지런히 닦아 풀러나지 말고 속히 정각을 이루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

나의 근본 원(願)은 그대 혼자만 생사의 바다에서 구해내는 것이니라. 이는 무슨 까닭인가? 그대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태탄승화네 가지로 생명을 받을 때마다 부모를 의지하여 출몰하였으니, 지극히 오랜 세월 동안 부모가 되었던 이만 하여도 한량이 없다. 이렇게 관찰한다면, 육도 중생 중 그 많은 생애에서 부모가 되지 않았던 이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중생들이 악취에 떨어져 발발없이 고통을 받고 있나니, 만약 그대가 구제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 벗어날 수 있겠는가? 가슴이 찢어지듯 애달고 슬프도다. 천번 만번 바라노니 그대는 빨리 큰 지혜를 밝혀 신통력과 자재한 방편의 힘을 갖추고, 속히 거친 파도를 헤쳐가는 듯대가 되

는데 따라 각기 다른 곱질을 덮어쓰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지가 되고, 호랑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호랑이가 되고, 모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기가 되는 것입니다.

### 불공은 불교의 수행이요 해탈의 길

불공은 불교의 수행이요 그 목적은 성불에 있습니다. 인간이 불교를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성불하기 위해서인데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은 곧 세상이 모든 고로 부터의 완전한 해탈을 의미합니다.

육도를 끊임없이 순환전(輪廻轉轉)하며 겪어야 하는 온갖 고통의 반복을 수행을 통해 부처의 경지에 이르면서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고 아무데도 갈림이 없는 대자유를 누림은 물론이요, 혼자만의 해탈이 아닌 고해의 못 중생을 구제하여 다 함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불교수행이요, 불공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불은 다 생각동안 전전해온 윤회의 아름다운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공이라고 하면 진언행자는 염승을 생각하게 되고 불공은 염승이요, 염승은 곧 불공임을 알고 행하고 있으면 염승은 우리의 주된 수행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수행의 목적은 그 어떤 것보다도 행자 자신의 마음을 닦아 대나갈 이 밝고 맑은 마음 하나로 일체고에서 해탈하여 부처님처럼 대광명으로 세상을 밝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수행의 실천과제이며 불교의 씨앗이 아니겠습니까? 행자의 마음가짐은 불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부처님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세간적인 모든 욕망과 욕구는 집착할 것 없는 허망한 것임을 알고 자신이 먼저 그 모든 집착을 끊어 버리고 또한 그렇게 평생을 가르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교주인 부처님이 다 버리신 것들을 다시 모으려고 하고 있으니 진실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교의 소의경전인 대일경에서도 밀교수행의 목적을 말씀하시며 자신의 본래정착한 마음을 여실히 깨닫는 여실자자심(如實知自心)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백팔염주 빛나는 것만큼 우리 마음과 입을 잘 닦아서 마음 다스리고 산다면 이것은 바른 불교수행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승을 많이 하는 것이 불공 많이 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모든 것이 다 성취된다는 생각과 마음 갖지 말고, 그 마음이 욕심에 가득 차 있고, 교도 보살들도 욕심에 가득 차서 불공하게 되면 기복신행(祈福信行)으로 빠지게 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교도들은 기복신행에 편승하지 말고 항상 바른 믿음과 신행이 되도록 해야 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삼밀관행과 육행십선을 꾸준히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마음 닦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신행이 되어서 아무리 불공해도 안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불공을 비방하고 중단을 비방하며 결국은 퇴진하여 떠나게 될 지도 모릅니다.

### 밀교를 수행하려면

밀교수행자는 윤회와 생사고해(生死苦海)에 대한 열리심(厭離心)을 내어 깨달음을 찾는 마음을 일으키고 중생에 대한 대제비심을 내어만 밀교를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자제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밀교의 소의경전인 대일경의 서품인 입진언문 주심품은 이 경전의 대의를 총론한 것으로써 그 주된 내용을 ‘대일경 삼구법문’이라 하는데 수행자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경계를 깨달으려면 보리심을 인(因)으로 하고 대비심을 근(根)으로 하여 방편을 구



### 내 마음자리가 부처도 만들고 천당, 지옥도 만든다 깨달음은 보리심을 인으로 하고 대비심을 근으로 한다

경으로 한다. 고 하듯이 밀교를 수행하려면 중생을 위해 깨달음을 향한 보리심을 먼저 낸 다음 중생구제를 위한 대제비심을 닦고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일체중생을 고와 고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대서원을 굳게 세우고 중생을 애민하게 생각하여 광대한 제비심을 남보다 더 일으켜 중생구제의 선교방편을 세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극도로 강력하게 이타의 마음을 가진 지만이 비로소 금강승인 밀교수행에 입문하고 수행하여서 성불의 경지에 오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교화는 중생을 제도하는 길입니다.

교화는 중생을 교도화 하는 뜻이니 만고불변의 진리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려 진리에 무지한 어두운 중생들을 진리의 문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끝없는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첫째 잘못을 보면 잘못을 덮어 두지 말아야 합니다. 교화할 상대의 잘못을 보고도 모른 채 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요, 따라서 죄가 됩니다.

잘못을 덮어두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고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선은 조용하다 할지라도 중생이 복되게 되지 못한다는 더 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살다가 죽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생교화에 삼수법과 절복법이 있으며 밀교에는 밀교삼륜신(密教三輪身)이 있는 것이라 때로는 교화를 위해서 자비한 마음의 보살이 되고 무서운 명왕인 교령륜신(敎令輪身)의 모습을 보이며 교령신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중생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섭수하고 절복하는 그 근본이 대제비인 것입니다.

둘째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진실한 구도자로서의 서원을 해야 합니다.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고 남의 잘못을 외면하는 것은 구도자로서의 자신의 소임과 사명감을 망각하고 충실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밀교사상중에 대략사상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체의 욕심을 버리고 소욕지족(少欲知足)하고 내 감정과 편견에 거슬리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성내고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오욕속에 살면서도 물들지 않고 청정함을 구현하고 사리사욕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하고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욕심의 불세, 진심(嗔心)의 불세를 버리지 말고 대욕과 대노를 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행하며 살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바 없는 ‘대력’을 얻게 되고 이 대력에서 깨달음을 얻어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가 되는 것이 밀교의 수행인 것입니다.

넷째 응병약(應病藥)이라 합니다. 불공중에 오는 마장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마장이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교화방편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종조법설에서 말씀하듯이 “불공중에 오는 마장을 현실적으로나 진리로서 막지도 않고 삼밀과 삼독심에 습성이 되고 젖어있는 중생의 병에 응해 약을 안주하고 그 미진(迷津)에 약 안주하면 시련고개를 못 이겨서 시간 여겨 중단하게 되고 마장따라 가기

때문에 퇴진하게 된다 어떤 어려움이 보일 때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을 사용해야 하며 조용히 회상하고 불공하여 그 마장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다섯째 사물에 대한 편견과 주장을 버려야 합니다. 삼해경에 ‘코끼리를 만져본 장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사물에 대한 자기의 편견이나 소견의 주장에 대한 잘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적은 소견만 내세우며 남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편협함과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내가 알고 행하는 법만이 불법이라고 내세우지 말고 내 마음에 사(邪)가 없고 행함에 미(迷)가 없다면 모든 것이 한 법도 불법이 아닌 것이 없겠으나 내 생각이 어둡고 좁고 미련하여 내 아는 법만을 고집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불교와는 인연이 멀어지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 법은 정(正)이고 내법은 사(邪)라고 하지 말고 오직 바른 법을 행할지언정 불법안에서 아시타비(我是非非)를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 법신이 설법한다

밀교에서는 형상이 없는 이불이 설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법신이 설법하며 또한 중생

상이 없는 이불인 법신불이 법신으로 설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중단의 수행풍토 조성

총지사 스승님과 교도들은 총지종의 크고 작은 행사를 담당하며 굳은 일 등 모든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총지종의 모든 법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중단의 수행풍토를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총지사에서 수행하는 보살들과 스승님은 자부심과 더불어 부담감도 많다고 한다.

한 보살님은 중단의 모든 행사도 다 부처님께 공덕을 짓는 일이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로하지만 정신적으로 행복하며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써 부처님의 공덕을 많이 입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수고로움을 감추려고 하셨습니다.

또한 현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삶이란 돈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항상 모르는 순간에 갑작스런 사고에 의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백만장자도 삶을 살아가면서 외부의 환경과 자신이 만들어 낸 상에 의해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용맹정진하며 모든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삶의 근본원인을 관찰하며 청정함 마음으로 용맹정진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돈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항상 남을 위해 봉사하는 보살도정신으로 생활한다고 하셨습니다.

총지사 서원당에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총지사 스승님과 교도들의 진주같이 아름다운보배의 법을 듣고 있을 때 이곳이 바로 극락이요, 천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내태했던 자신을 자책질 하며 위대한 스승님과 교도들을 만날 수 있었음에 부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서원당을 나왔다.



이 어떻게 알아듣게 되는 것일까? 하고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밀교수행자는 수행을 통하여 마음의 눈과 귀를 기울여서 대우주를 관찰하며 현상을 통해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事)를 통한 현상 그대로가 당체이며 일사일물(一事一物)이 당체 그대로 무한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事)는 인연의 화합에 의해 생기게 된 것으로 모든 연기현전(緣起現前)하는 법이 법계의 법문을 말하는 것으로 당체설법(堂體說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설하는 밀교의 법신중에 등류법신(等流法身)이 있습니다. 등류(等流)란 중생과 같은 모습이 되어 법을 설한다는 뜻으로 깨달음으로 이끌고 가는 중생과 같은 장소, 같은 모습이 되어 경적(警責)하고 법을 설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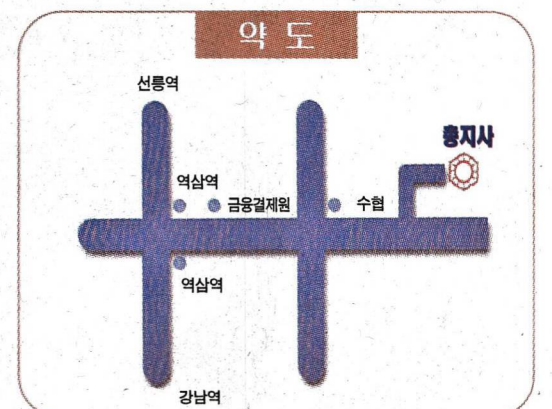
법신의 몸은 형상이 없어 다 함이 없는 무진상(無盡相)이므로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문도 다함이 없는 지라. 어떤 때는 부처님 모습, 보살 모습, 연각, 상문, 법전, 제석, 대제제천, 나라연천 등의 모습을 나타내며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이의 모습으로 나타내며 장부, 부녀자, 동남동녀, 나가 개나 소 등 금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니 이것은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타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서 밀교 삼륜신(三輪身), [자성륜신(自性輪身), 정법륜신(正法輪身), 교령륜신(敎令輪身)]이 있으니 이것은 중생구제를 위해 나타나는 법신의 세 가지 모습으로 이 삼륜신의 나타남은 수행자의 수행공덕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밀교에서는 진리를 본체로 하는 형

### 법등정사와 인덱스 전수님은

자경문에 “몸을 정중히 가지면 산란함이 쉬어져서 선정을 이루게 되고 말이 적으면 여러식음을 돌려 지혜를 이룬다. 참된 바탕은 말을 여의었고 참된 이치는 움직이지 않으리라. 입은 재화의 근본이니 반드시 엄숙하게 지켜야 하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가벼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지주 나는 세는 그물에 걸릴 위험이 있고, 가벼이 쏘다니는 짐승은 화살 맞을 재앙이 없지 않나니라. 몸과 마음에 동함이 없이 하고 고요하게 단단 부처님을 보아 스스로 귀의할 지니라.” 라는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오직 수행정진을 최고로 생각하시면서 용맹정진하시오지 힘들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바른 마음가짐으로 정진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고 바른 수행 가운데 공덕도 생기고, 소원도 성취된다고 하시면서 불도를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수행정진하고 계신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02)552-1080~3



어 탐욕의 저 언덕에서 헤메는 미혹한 중생들을 널리 제도할 지이다.” 모든 것은 마음자리 주인공이 만들어 내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부처도 만들어 내고, 천당도 지옥도 만들어 냅니다. 마음자리 주인공, 그것이 씨앗이 되고 작용을 하여 모든 것을 만들어 냅니다. 너와 나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고, 길고 짧고 착하고 악하고, 아름답고 추하고, 친하고 성글고, 살고 죽고, 성하고 쇠한 중생세계가 꼭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길모습 또한 마친가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갖는